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이 홍 식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hslee@kiep.go.kr, Tel: 3460-1200)

이 경 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khyi@kiep.go.kr, Tel: 3460-1083)

주요 내용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지난 7월 12~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
-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로 한국은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NAFTA 시장과, 인구 8억 명 및 GDP 13조 달러 규모의 북남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FTA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서로 시장잠식의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KIEP의 일반균형연산(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의 후생은 각각 0.38% 및 0.29%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5억 달러, 캐나다는 약 16억 3,000만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한·캐나다 FTA 협상시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협상시 유연성을 발휘하는 한편, 투자, 서비스 분야 및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1.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 및 의의

가.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지난 7월 12~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함에 따라 양국은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됨.
- 구체적으로 한·캐나다 FTA의 협상 범위는 ▲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는 상품분야 ▲ 금융, 통신, 건설 및 유통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 ▲ 투자 분야 ▲ 정부조달 분야 ▲ 지식재산권 분야 ▲ 경쟁 분야 등 교역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됨.

나.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의 의의

-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로 한국은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NAFTA 시장과, 인구 8억 명 및 GDP 13조 달러 규모의 북남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FTA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최근 북미지역 국가들이 여타국들과 다양한 FTA를 체결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에서 겪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이들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 추진을 통해 아시아 지역(싱가포르, ASEAN 및 일본), 유럽지역(EFTA), 중남미지역(칠레)에 이어 북미지역에도 거점 국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04.4 발효)를 필두로 싱가포르(05.4 가서명), EFTA(05.7 타결)와 이미 협상을 타결지었으며, 현재 ASEAN(05.2 협상개시) 및 일본(03.12 협상개시)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6번째 FTA 협상 대상국이 됨.

- 또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자 G8 국가인 캐나다와의 FTA 추진은 우리의 경제개혁 및 개방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 등으로 우리의 경제선진화를 한층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경제규모가 크고 명실공히 선진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경쟁환경은 개혁과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upgrade)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 특히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적응력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WTO의 DDA 협상과 같은 다자차원의 폭넓은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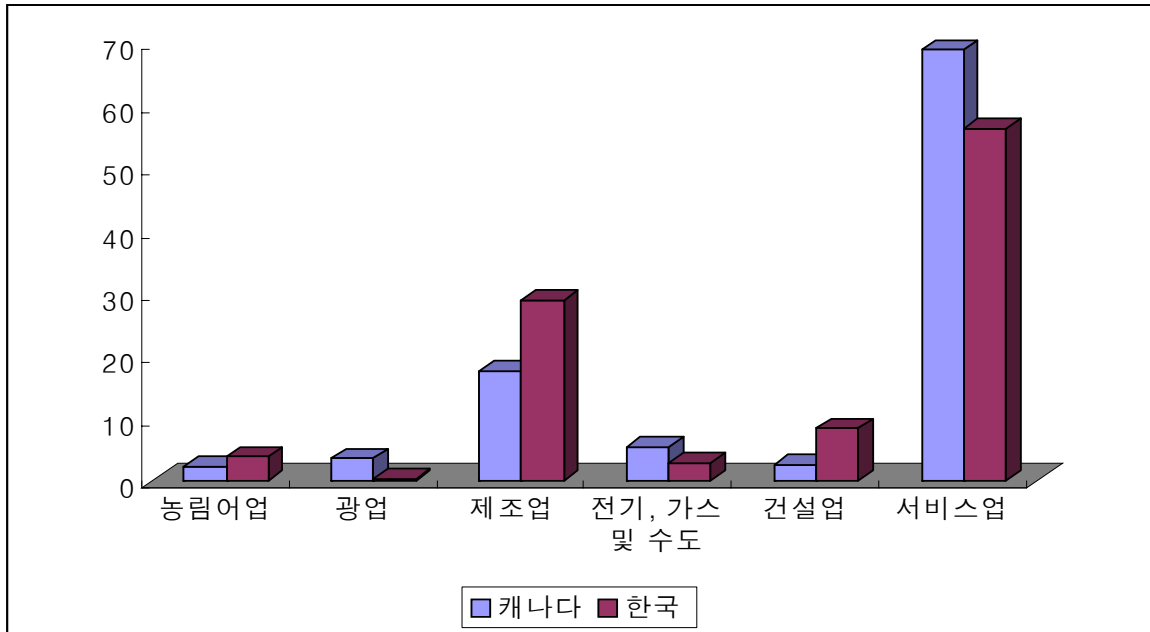
2.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의 배경 및 경위

가. 한·캐나다 FTA 협상의 추진 배경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교역량이 총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통상국가로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상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옴.
-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WTO에 의해 추진되는 다자무역협상을 통해 자국의 무역이익 확대를 추구해 왔으나, 최근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FTA 체결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와 협력의 잠재성을 감안할 때, FTA가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한·캐나다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됨.
-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한국과 캐나다의 GDP 대비 산업 비중(2003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및 캐나다 통계청.

-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캐나다는 북미시장(NAFTA) 진출의 교두보를,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북아 진출의 발판을 제공함과 동시에 양국이 동 FTA 추진을 통해 자국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적 수단을 확보한다는 데 공감함.
 - 또한 미국과의 FTA 추진에 앞서 캐나다와 먼저 FTA를 추진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미국산 수입 농산물에 비해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특혜가 클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나. 한·캐나다 FTA 협상의 추진 경위

- 지난 2003년 8월 확정된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에서 캐나다는 중장기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대상국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WTO의 칸쿤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결렬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됨.
- 이후 2004년 5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북미시장과의 연결고리 마련 및 일본·멕시코

코 FTA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캐나다 FTA를 추진기로 결정하고 우선 한·캐나다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 이후 2004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기로 합의함.
- 이에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의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FTA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FTA의 대상 범위 및 포함 내용, FTA 추진 시 양국의 관심 및 민감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함.
- 동 예비협의에서 양국은 그동안 자국이 추진한 여러 FTA를 상호 검토하면서, 양측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교역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한 점을 상호 평가하고 향후 한·캐나다 FTA 추진시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기로 합의함.
- 다만 이 경우에 양측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존재하는 일부 민감 품목 및 분야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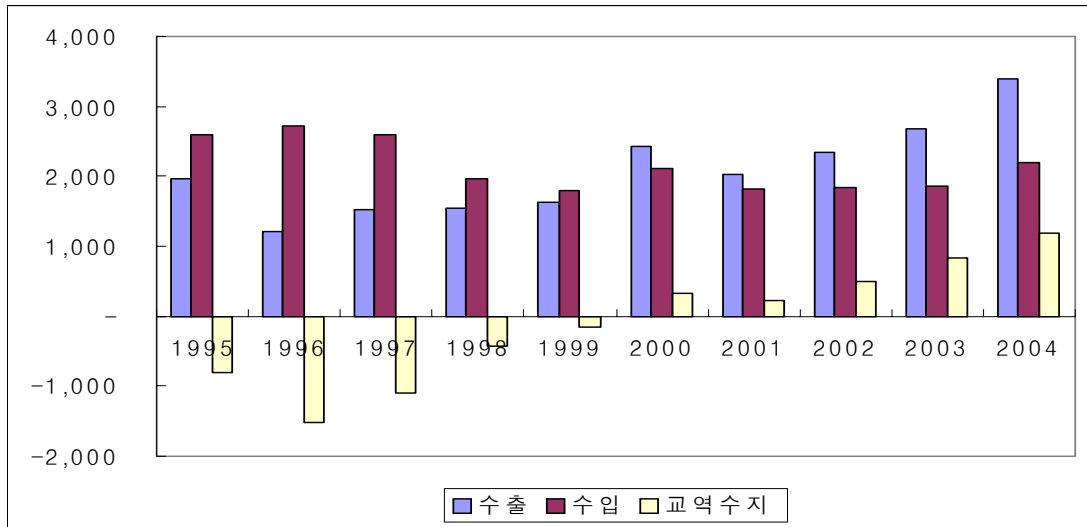
3.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가.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 2004년 기준 한국과 캐나다간 교역규모는 약 55억 달러로 캐나다는 한국에 17위, 한국은 캐나다에 10위의 교역 대상국임.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33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1억 8천만 달러로 한국은 캐나다와의 교역에서 약 1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함.
-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로 자동차는 2004년 기준 총수출액의 3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가 9.5%의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는 캐나다로부터 제지원료, 석탄, 니켈제품 등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제지원료가 총수입의 18.2%, 석탄이 12.6%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2.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1.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대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		대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	
품목명(MTI 3단위)	금액(비중)	품목명(MTI 3단위)	금액(비중)
자동차	1,299(38.4)	제지원료	398(18.2)
무선통신기기	322(9.5)	석탄	275(12.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34(4.0)	니켈제품	137(6.2)
고무제품	93(2.7)	석유화학합성원료	107(4.9)
컴퓨터	91(2.7)	알루미늄	105(4.8)
의류	86(2.5)	목재류	92(4.2)
철강판	82(2.4)	유선통신기기	77(3.5)
자동차부품	79(2.3)	동광	73(3.3)
영상기기	70(2.1)	우라늄	69(3.2)
총계	3,383(100.0)	총계	2,189(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편, 2004년 기준 캐나다의 대한 투자는 총 2억 2,400만 달러로 캐나다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에서 1.7%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역시 약 4,200만 달러로 한국의 총해외투자 대비 0.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양국간 투자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 업종별로 보면, 한국은 주로 캐나다의 광업(2,982만 달러), 숙박음식업(300만 달러), 기타 서비스업(257만 달러) 및 부동산업(223만 달러)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통,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등과 같이 주로 한국의 서비스업에 투자하고 있음.

표 2.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캐나다의 대한 투자	347 (2.2)	520 (3.3)	1,506 (12.7)	261 (2.9)	73 (1.1)	224 (1.7)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20 (0.4)	41 (0.7)	52 (0.8)	10 (0.2)	36 (0.7)	4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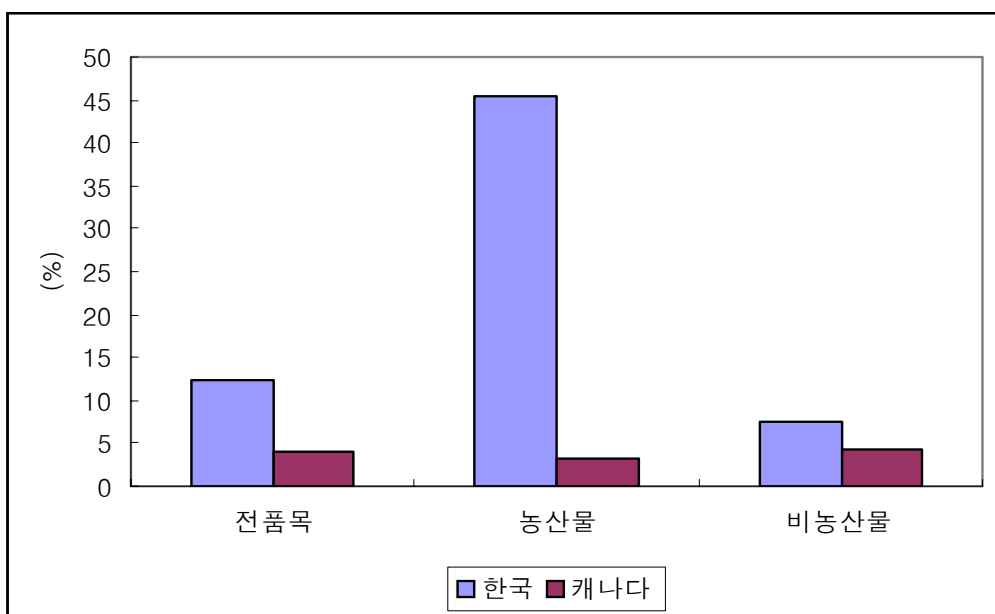
주: 상단의 () 안은 캐나다의 총투자 대비 對韓 투자의 비중, 하단의 () 안은 한국의 총투자 대비 對캐나다 투자의 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한국과 캐나다의 관세 현황

- 한국과 캐나다의 전품목에 걸친 MFN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각각 12.4%와 4.1%로 한국의 관세율이 캐나다의 관세율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은 수준임.
-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보면, 캐나다는 3.1%, 한국은 45.5%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캐나다가 4.3%, 한국이 7.5%로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음.
- 즉 한국은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고 비농산물에 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이와 반대로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저관세를 부과하고 비농산물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림 3. 한국과 캐나다의 단순평균 실행 관세율



자료: WTO

다. 한·캐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 KIEP의 일반균형연산(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의 후생은 각각 0.38% 및 0.29%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5억 달러, 캐나다는 약 16억 3,000만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표 3. 한·캐나다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단위: %, 백만 달러)

	후생증가(%)	등가변환(백만달러)	국내총생산(%)	수출(%)
캐나다	0.29	1,629.04	0.48	0.53
한국	0.38	1,502.59	0.40	0.88

자료: KIEP(2005)

- 또한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양국의 미국 및 EU 등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약 67%, 캐나다의 對韓 수출은 약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들 국가들의 미국 및 EU로의 수출은 0.32~1.0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한국과 캐나다의 지역별 수출 변동률

(단위: %)

	한국	캐나다	미국	EU	기타 국가
한국	-	67.37	-0.32	-0.45	-0.4
캐나다	102.95	-	-0.91	-1.09	-1.04

자료: KIEP(2005)

- 양국간 FTA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의류, 섬유,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의 對캐나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 등의 대캐나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섬유쿼터 폐지와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의 경쟁으로 인해 수출 증가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서비스 산업의 對韓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한편 여타 제조업 부문에서의 對韓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한·캐나다 FTA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한국	캐나다
농산물	-0.10	0.89
축산물	-0.14	0.71
임수산물	0.13	-0.09
광물	0.09	-0.16
가공식품	0.01	0.47
섬유	0.88	-0.66
의류	3.44	-1.87
화학제품	0.22	0.08
철강 및 금속	0.03	-0.39
자동차 및 부품	0.28	-0.35
운송장비	-0.51	-0.95
전자제품	-0.02	0.05
기계	0.07	-0.39
기타 제조업	0.24	-0.24
서비스	0.33	0.55

자료: KIEP(2005)

4. 한·캐나다 FTA 협상의 예상 쟁점 및 대응방향

- 캐나다는 WTO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케언즈 그룹의 일원으로서 주로 수출국 입장에서 농산물 수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이에 따라 캐나다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간 예비협약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민감 분야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다는 이해하에 가급적 폭넓은 관세 철폐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결국 캐나다와의 FTA에서는 민감품목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캐나다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해 관세인하 및 TRQ 등 다양한 옵션을 개발하여 타협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농업 분야에 있어서 관세 이외에도 검역문제 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산지과 같이 별도의 분야로 취급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산물의 경우 캐나다측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제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산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에 준하여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산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공산품과 동일취급 반대, 장기간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수산분야 협력사업 실시 등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협상시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임.
- 캐나다가 이미 체결한 여타 FTA는 노동과 환경 문제를 별도의 협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미국과의 FTA에서는 문화 분야를 FTA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와의 FTA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UR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 특히 규범분야에서 캐나다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캐나다는 미국과 이미 FTA가 체결된 상황이므로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러한 사항에도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캐나다측은 이에 대해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동 사안은 한·일 FTA 협상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는 여타 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북아 평화안정의 중요성 및 정치적인 함의 등을 강조하여 캐나다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할 것임.
- 한편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투자 수준은 잠재능력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바,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많은 투자기회를 보장하는 등 FTA 협상시 높은 수준의 투자 촉진안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교역효과는 상당히 컸음에 비해 투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나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캐나다는 NAFTA의 우회수출 기지로서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북미시장의 생산 및 유통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 동아시아 진출 거점 마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바 양국간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이밖에도 관세 철폐 위주의 FTA를 넘어서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